

# 여야 초유의 '본회의장 동시농성' 대처

## “野의원 의장석 점거 대비” “미디어법 직권상정 저지”

### 레바논 파병 연장 처리후 퇴장 않고 점거... 충돌 우려

여야의 상호 불신이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 점거하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비해 자리를 지켰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 점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역시 자리를 뜨지 않은 것이다.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지난 1. 2차 입법대처에 이어 또다시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진풍경은 이미 지난 8일 김영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파병연장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할 때 일어났다.

당시 여야는 안건을 처리한 뒤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합의하는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상호 불신이 깊어지면서 서로 본회의장 점거 가능성을 점쳤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장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지도부에 퇴장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시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선점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더욱이 양당은 이날 2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회기 마지막날(25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밤샘조 편성을 하는 등 ‘농성 작전’까지 세웠다. 민주당은 25명씩 3개조, 한나라당은 40명씩 4개조로 나눠 농성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호 불신이 이날 본회의장 동시 점거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견 조율이 실패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내 미디어법 표결처리를 촉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회기 연장을 거듭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이날 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회의장을 봉쇄하면서 파행을 면치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에 대한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동명부대의 파병기간은 1년 6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또 안상수 운영위원장,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심재철 예결특위위원장, 이한구 윤리특위위원장 등 4개 위원장 선출안을 각각 처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김영오 의장의 산회 선포이후 회의장을 떠나지 않은 채, 혹은 있을지 모를 회의장 점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경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 의원석으로 가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자며 권유하고 있다. /연습뉴스

# 박근혜 “미디어법 여야 합의처리해야”

## 강행처리 반대... 한 직권상정 제동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을 여야간에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잘 지켜봤다”며 “여야간에 어떡하든지 합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 했는데 끝내 합의가 안 되고, 그리

고 한나라당의 최종안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구체적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미디어법에 대해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방송진출을 하는 데 허가 기준을 매체별한 시장점유율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을 한다면 언론, 여론의 다양성도 보호하면서 또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방 경영은 허용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같이 밝힌 박 전 대표는 “일마든

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합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합의가 가능하면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박연대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야 5당 전선에 합류한 데 이어 박 전 대표까지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나선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성관 파동... 인선기준 대폭 강화 ‘능력’보다 ‘도덕성’ 우선시 할 수도

## ■靑내달 중순 대폭 개각 어떻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 철회 파동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인사 검증이 요구되면서 국정 쇄신의 계기를 마련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을 놓고 여론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개각 및 참모진 개편에 대해 아직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반까지는 인적 개편 카드가 제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5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예측하지 못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이 대통령은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중도실용주의와 서민 친화 정책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 후보자의 사퇴 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상쇄할 인적 개편 카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천 후보자의 사퇴 파동으로 인적 쇄신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일단 이 대통령의 휴가가 8월 초순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재로서는 개편의 시점이 휴가를 다녀온 뒤인 8월 중순께가 되거나, 아니면 휴가 직전인 7월 말 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천 후보자의 예상치 못한 낙마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8월 중순께 인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치밀하게

인사 검증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통령이 휴가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 구상을 가다듬은 뒤 휴가 직후, 또는 1~2주 내에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게 8월 중순 이후 개편설의 요지다.

반면 여론 일각에서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정동기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등으로 인사 수요가 발생한다. 검찰 조직마저 동요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천성관 파동에 따라 이 대령이 7월말 인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면서 “꼭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기획재정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용호(사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조건부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백 후보자가 대학의 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와 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장으로 국세행정에서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명시했다.

또 청문보고서에는 부동산 매매 및 소유과세에서 투기의혹과 세금탈루 의혹으로 인해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고 국세행정 전문성과 개혁의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백 후보자가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도덕성, 개혁의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종합의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하마터면 청문보고서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기재위원장이 “알았다. 우선 오늘 오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종합의견에 민주당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문구를 넣겠다”고 약속한 후 보고서가 채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DJ 폐렴... 감염 방지 중환자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일 건강 검진 결과 폐렴으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입원 후 김 전 대통령의 증상이 폐렴으로 확인돼 오후 1시경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위독한 상황이 아

니라 합병증 발생 등에 대비해 안전한 치료를 받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상태와 관련, “의식이 분명하고 호흡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호흡기를 한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감기 기운과 미열이 있어 전날 폐렴 여부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의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8월과 9월에도 폐렴 증세로 입원했으며, 작년 7월 말에는 건강검진차 입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려면 영화박스

영화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제일 시네마
<p>www.megabox.co.kr</p> <p>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최고급관</p> <p>2관 킹콩을 들다 (전제)</p> <p>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4관 킹콩을 들다 (전제)</p> <p>5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p> <p>6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세)</p> <p>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p> <p>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10관 오감도 (18세)</p>	<p>www.joybc.com/1588-7941</p> <p>1관 주은 (15세)/거북이 달린다 (15세)</p> <p>2관 킹콩을 들다 (전제)</p> <p>3관 아더와 미니모이 (전제)/차우 (12세)</p> <p>4관 차우 (12세)</p> <p>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7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8관 아부지 (12세)/오감도 (18세)</p> <p>9관 여고괴담5 (15세)/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10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www.hamcinema.com/1588-9120</p> <p>1관 오감도 (18세)</p> <p>2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3관 아더와 미니모이 (전제)</p> <p>4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제)</p> <p>5관 트랜스포머 (12세)/거북이 달린다 (15세)</p> <p>6관 킹콩을 들다 (전제)</p> <p>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8관 차우 (12세)</p> <p>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10관 주은-원혼의 부활 (15세)</p>	<p>www.dnusa.com/1544-0070</p> <p>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2관 킹콩을 들다 (전제)</p> <p>3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4관 거북이 달린다 (15세)/오감도 (18세)</p> <p>5관 차우 (18세)/오감도 (18세)</p> <p>6관 차우 (18세)</p> <p>7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www.primcinema.com/www.jelcinema.com</p> <p>1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2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p> <p>3관 차우 (18세)</p> <p>4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5관 거북이 달린다 (15세)/킹콩을 들다 (전제)</p> <p>6관 여고괴담5 (15세)/오감도 (18세)</p>